



전구소켓에 끼워 쓰는 CCTV ... HD급 영상 전송

직장 생활을 하던 김찬영 토브넷 대표는 2011년 초 폐회로 TV(CCTV)에 처음 관심을 가졌다. 지인이 운영하던 펜션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우연히 보고는 깜짝 놀랐다. 카메라 4대에 200만 원이 훌쩍 넘는 비용을 들였는데도 물체 윤곽만 겨우 가늠할 정도로 화질이 나빴기 때문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김 대표는 화질이 나빴던 CCTV 영상이 떠올랐다.

그로부터 2년이 채 안돼 김 대표는 CCTV 제조와 영상물 전송 전문업체 토브넷을 세웠다. 기존 CCTV의 영상 품질과 설치 비용 개선을 목표로 삼았다. 고해상도 CCTV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LED(발광다이오드)전구와 CCTV를 결합한 '토브넷캠'을 내놨다.

◆200만 화소 카메라 단 LED 조명 토브넷캠은 LED 전구 모양이다. 일반 LED 조명과 디자인이나 크기가 비슷하다. 전구 가운데 부분에 200만 화소 카메라가 달려있다. 전구 소켓에 끼우고 무선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CCTV 기능이 작동한다. PC와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고해상도(HD급)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명을 끈 상태에서 작동한다. 별도의 LED 램프와 적외선 램프를 내장해 주야간 활



김찬영 토브넷 대표가 서울 대치동 SETEC 전시부스에서 '토브넷캠'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이민하 기자

LED등·고화질 카메라 결합 영상데이터 압축기술로 국가신기술 인증 받아 열 감지하는 CCTV도 개발

영이 가능하다.

LED 전구와 CCTV를 결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선 영상 전송 기술 덕분이다. 데이터 용량이 큰 고해상도 영상을 무선 전송이 가능한 저용량 데이터로 압축했다. 토

브넷은 무선 전송을 위한 데이터 압축 알고리즘 기술로 국가신기술(NET) 인증까지 받았다. 김 대표는 "스마트기기에 실시간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해 고해상도 CCTV 영상을 무선으로 전송하는 독자 기술을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화재 감지·비데이터 분석 CCTV 김 대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출신이다. 동영상 서비스와 무선 데이터 전송 기술개발을 주로 해왔다.

LED 전구와 CCTV를 결합하겠다는 독특한 발상도 제조업 기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김 대표는 "카메라 전력 공급 문제를 기존 전구소켓을 이용해 해결하면 어떻게 하는 아이디어에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달 일(art@hankyung.com)로 신청 받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 △예코시스-웰메트 (02)786-7115 △에어볼-무전원 자동물내림 시트 (02)6243-3330 △효성중합-발광 교통안전표지판 (031)871-7284 △토브넷-LED전구 결합형 폐쇄회로TV(CCTV) (02)3216-3983

서 출발해 LED 전구와 CCTV를 결합한 제품을 내놓게 됐다"고 말했다.

토브넷은 무선 인터넷 기술과 온라인 서비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올 들어 기존 LED전구 CCTV보다 사용자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을 내놓았다. 전원만 연결하면 별도 설정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는 조간판 CCTV다. 열 감지 센서를 탑재한 화재조기감지 CCTV도 개발 중이다. 기존 화재 감지기와 달리 열 패턴을 분석해 조기에 화재를 감지해 알려준다. 동작을 데이터로 기록해 행동 분석이 가능한 CCTV도 내놓을 예정이다.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올해 내수 中企 2600여개 수출기업으로 키우겠다”

임채운 중진공 이사장

임채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사진)은 “내수에만 의존하는 기업들을 해외 시장에 내보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임 이사장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2600여개 내수 기업의 수출을 올해 안에 성사시킬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지원을 작년 1250억원에서 올해 2250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했다.

여기에 올해 새로 책정된 ‘수출 사업화 자금’ 500억원도 포함됐다. 수출 사업화 자금은 성장 단계별로 기업을 세분화해 맞춤형으로 연계 지원한다.

수출 실적이 많은 중소기업은 ‘글로벌CEO클럽’으로, 내수 기업 중 성장 잠재력과 수출 의지가 강한 수출 초보기업은 ‘퓨처스 클럽’으로 나눠 지원한다. 이들 기업을 상대로 단순한 융자뿐 아니라 마케팅과 인력 등도 연계해 지원할 방침이란 설명이다.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지원을 받고 성

과를 낸 기업에 대한 추가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임 이사장은 “자금 운용, 수출 실적 등 이력 관리(CRM)를 통해 성장성을 보이는 기업에 지원을 늘려줄 것”이라며 “정책 자금의 효율성을 높여겠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수출이 20% 증가한 기업은 정책 자금 대출 한도를 두 배 늘려주는 식이다. 그는 “중소기업을 단순 지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 성장이라는 실질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치중할 것”이라고 했다.

인력 양성 지원도 강화한다. 그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를 3만명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같은 기간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 이사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일학습병행제 참여 기업 등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유형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0억원 규모의 창업 성공 패키지 전용자금을 만들어 청년 창업의 성공률을 높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



임상환자 못구해 ... 희귀질환 신약개발 차질

바이오 특특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나선 국내 제약사들이 임상 환자 모집에 잇따라 실패하고 있다.

한독은 ‘크리오피린 관련 주기적 증후군(CAPS)’ 환자를 대상으로 한 바이오 의약품 ‘HL2351’의 임상 2상 시험을 중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발열 등을 일으키는 CAPS는 세계적으로 인구 100만 명당 1명꼴로 환자가 나타나는 희귀질환이다. 국내에는 환자 10여 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독은 국내에서 2019년까지

기업	대상 질환	개발단계
한독	CAPS	임상중단
녹십자	헌터증후군	임상2상
부광약품	파킨슨병	임상1상완료
메디포스트	미숙아폐질환	임상1·2상

환자 8명을 대상으로 임상 2상을 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임상 시작 2년 만에 임상시험을 중단했다.

한독 관계자는 “환자 모집이 어려워 임상시험을 조기 종료했다”며 “CAPS를 제외한 다른 질병에 대한 임상시험을 할 계획”

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제약사들이 경쟁적으로 희귀질환 신약 개발에 뛰어들고 있지만 임상 환자 모집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녹십자는 지난해 10월 희귀질환인 혈우병 치료 신약 ‘그린진에프’의 임상 3상을 중단했다. 신규 환자 모집이 어려워서였다.

세계 희귀 의약품 시장 규모는 2013년 900억달러에서 2020년 1760억달러로 확대될 것이라 전망이다. 연평균 성장률은 10.5%로 전체 의약품 성장률(5.2%)보다 높다. 녹십자(헌터증후군 치료제) 부광약품(파킨슨병 치료제) 메디포스트(미숙아 폐질환

치료제) 등이 희귀 의약품 개발에 잇따라 뛰어든 배경이다. 한미약품도 지속형 치료제 기술 랩스카버리를 적용한 희귀질환 치료제 후보 물질 1개를 발굴해 연구 중이다.

국내에서 희귀질환은 환자 수가 2만명 이하인 질병을 말한다. 이 때문에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에 참여할 환자를 모집하기가 쉽지 않다. 세계 각국 정부가 임상 3상까지 해야 하는 대부분의 의약품과 달리 희귀질환 의약품에는 2상만 해도 판매허가를 내주는 이유다.

조이현 기자 mwise@hankyung.com

中 10대 친환경 건축자재 LG하우시스 4년째 선정

LG하우시스가 중국 친환경 건축자재 10대 브랜드에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이 회사는 최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제14차 ‘건설업계 연간 브랜드대상’에서 친환경 건축자재 10대 브랜드로 선정됐다. 이 브랜드대상은 중국 전국 건설사협회가 주관한다.

LG하우시스는 2014년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10대 브랜드에 뽑힌 이후 4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의 건축자재업체로는 유일하게 뽑혔다. 중국 내 건축자재업체 중 유일하게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분석 설비를 갖춘 등 친환경 트렌드도 선도하고 있다.

제약사들, 의약품 온라인 유통 경쟁

일동·보령, 오픈마켓 개설

제약사들이 약사와 병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의약품 판매 사업에 나서고 있다. 도매상에 의존하는 의약품 유통구조를 바꿔 유통 비용을 줄이려는 전략이다.

이달 초 일동제약은 온라인 의약품판매 사이트 ‘일동샵’을 열었다. 보령제약도 ‘팜스트리트’를 개설했다.

두 회사는 자사 제품을 우선 판매되 다른 제약사의 의약품도 판매하는 오픈마켓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2009년과 2012년에 문을 연 대웅제약의 ‘다상’과 한미약품의 ‘HMP’도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의약품 온라인 도

매판매로 유통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 보령제약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인건비, 도매상 수수료 등 중간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다”며 “재고 파악 등 유통 관리 효율성과 이익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라인 의약품 판매를 통해 리베이트와 밀어내기 등의 폐해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온라인으로 거래하면 필요한 수량만 정해진 가격으로 사고팔기 때문에 리베이트, 밀어내기 등이 점차 줄어들 것”이라며 “가격 경쟁, 서비스 경쟁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근희 기자 tkfca7@hankyung.com

청년세대, 귀농, 귀촌인, 퇴직자, 골프매니아 최적 창업아이템!!

고소득 여가 레저 스포츠 사업! 모아온 대리점모집

펜션, 캠핑장, 전원주택, 개인주택까지도 모아온 설치 붐!

창업비 2천만원으로

업장은 고객유치, 기업은 신뢰도, 개인주택은 상류층심벌로 전원주택, 별장, 기업복지후생, 숙박시설, 위락시설, 해수욕장, 유원지 모델하우스, 상류층 개인주택 실내연습장 필수! 체험장만 설치하면 투자와 영업은 끝!! 말이 필요 없는 영업, 체험10분이면 OK~

노래방, 영화관, 스크린골프, 파티룸까지... 모아온 한다면 OK!

농 어촌 산간지역도, 도심지역도, 청년세대도, 은퇴세대도 본업으로 부업으로도 대만족 이색창업!!

본업이 뭐든 여가, 레저를 즐기면서 돈버는 투잡창업

2017년 신년이벤트

17개점 첫 구매자 (선착순) 대리점권 부여

특전: 판매권, 본사의 주2회 일간지 판매권과 전국박람회 참관으로 판매시 해당 지역 실적 배분 (단체협약 제공시)

강원도 1개점, 경기도 2개점, 충청도 2개점, 전라도 2개점, 경상남도 2개점, 경상북도 1개점, 제주1개점

대/리/점/문/의/전/화 (주)용원시스템 대표전화 1522-7092